

연하장·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문자 확인했다 '허걱'

연말연시 '스미싱' 극성

〈접속편 곧바로 소액결제〉

광주경찰, 울들어 980건 피해 신고 주의 당부

연말 분위기에 편승한 '스미싱' (Smishing)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 주소에 따라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사기 수법. 사회 이슈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맞춤형' 메시지로 현혹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북한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사건 이후에는 처형 동영상을 미끼로 한 스미싱 문자가 급속도로 퍼졌고 능능 시험 이후 원서 접수가 한창 진행되면서 '합격자 통보 문자'를 빙자한 스미싱 문자가 나돌았다. 결혼 시즌 즈음에는 '웨딩포토'가

확산했다. '경찰서 출석요구서', '건강보험 무료 암검진 대상입니다' 등의 사칭이 이슈가 담긴 신종 메시지도 울 한 해 끊이지 않았다.

광주지방경찰청에 울 들어 지난 10일까지 접수된 스미싱 피해 신고 건수도 980건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2182건(5억6900만원)에 불과했지만 올 7월까지 1만8143건(35억3000만원)으로 급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성탄절인 25일 광주시 북구 임동 대주교회 성당에서 열린 미사에 참석한 신자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구유 앞에서 인사를 하며 축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낮선 문자메시지 열지 말고 삭제하세요

스미싱 예방 요령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는 되도록 열어보지 않는 것이다. 생소한 이름이나 회사, 기관명의 문자가 도착하면 일단 스미싱으로 의심해야 한다. 특히 국제청은 연말정산과 관련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또 스마트폰에 스미싱 방지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차단하거나 제한해두는 조치를 해주면 안심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www.ctrc.go.kr)에 스미싱 의심번호로 신고된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번호를 확인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사기 피해로 신고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25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연말을 맞아 각종 연하장과 물품 배송과 관련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위장한 '변종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주의보'가 내려졌다. 최근 급증하는 스미싱 문자메시지는 크리스마스·연하장 등 연말연시와 관련한 내용으로, 'XX제과,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클릭 확인하세요', '연하장이 도착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세요', '알리미 : 교통 단속으로 인한 벌금내용서 확인' 등이다. 궁금하다며 문자에 첨부된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바로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이뤄진다.

광주·전남 곳곳 성탄 미사·예배

25일 성탄절을 맞아 광주·전남 곳곳의 천주교 성당과 개신교 교회에서는 성탄 미사와 예배가 이어져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했다. 광주시 북구 북동주교과 성당에서

는 김희중 대주교의 집전으로 '예수 성탄 대축일 밤 미사'를 진행하는 등 광주·전남 지역 성당 및 교회에서는 다양한 성탄 행사가 이어졌다. 김희중 대주교는 "지금 우리 시대는 과도

한 경쟁과 긴장감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고달픈 삶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때"라고 성탄 메시지를 전했다. 시내 중심가와 지역의 주요 관광지는 휴일과 성탄을 즐기려는 인파로 붐볐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와 서구

상무지구 등 광주지역 극장가와 음식점 등은 성탄 연휴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만원을 이뤘다. 지역 축제도 잇따랐다. 보성군 '보성차밭 빛축제', 나주시 '이슬촌 해피크리스마스' 등 전남지역 각 지자체는 각종 축제를 준비해 크리스마스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였다. /김용희기자 kimyh@

교사·학생·학부모 50% "방학분산제 도입하자"

교사와 학생, 학부모 절반가량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방학분산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교사와 학부모는 자율휴업일을 활용한 단기방학, 학생은 시험 뒤 일주일 정도 쉬는 형태의 방학을 선호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5일 내놓은 '방학분산제 실시 적합성 분석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양승실)를 보면 전국 469개교 교원, 학생, 학부모 7천27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46.7%가 '방학분산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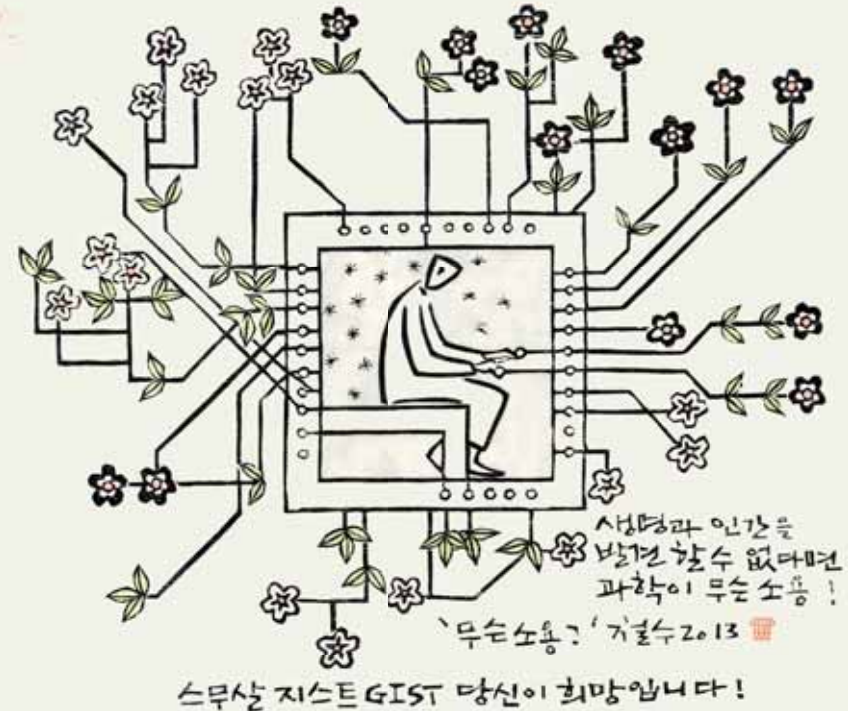
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2.4%였다. 교원과 학부모는 방학분산제 도입 시 단기방학 기간으로는 1주일 이상 적당하다고 봤다. 응답률은 각각 36.3%와 40.5%로 집계됐다. 반면 학생은 '2주일 정도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32.0%로 '1주일'(25.8%)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방학분산제의 형태를 두고도 교원·학부모와 학생의 견해가 다소 엇갈렸다. 교원과 학부모는 각 81.7%와 81.2%가 '지금처럼 여름과 겨울 두

차례 방학을 하되 자율휴업일을 활용해 단기방학을 시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학생들은 78.9%가 '평가 후 일주일 정도 방학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적절한 도입시기는 '내년부터' 41.5%, '2~3년 이내' 36.9%, '4~5년 이내' 13.4%, '5년 이후' 8.3% 순이었다. 방학분산제 시행 시 우려되는 점으로는 교원 75.4%, 학부모 70.9%가 '맞벌이 가정의 보육문제'를 꼽았다. '사회·경제적 차이로 인한 체험활동의 격차'도 각각 65.3%, 59.5%가 지적했다. /연합뉴스



GIST와 중칭화대학이 함께하는 GIST 기술경영아카데미 제4기 수강생 모집

GIST · Tsinghua-SEM Techno CEO Program



모집기간 | 수시모집 (~2014. 2.28 까지)

GT MBA 개설 목적
기술변화 추세 및 국제화 패러다임에 창조적으로 대처하는 21세기 CEO의 핵심역량 개발

- 개요 및 특징**
 - 교육기간 : 20주 (2014.3.4 개강, 매주 화요일 강의)
 - 중국 칭화대학 현지 교육 시행
 - 산업시찰 등 현장 중심 교육
 - 원우회, 소그룹 등의 지원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제공
 - 해외석학 초청 및 최신 기술동향 습득
- 수강생 특징**
 - GIST 수료증 부여 / GIST 동문자격 부여
 - 중국 칭화대학 SEM 수료증 수여(현지 교육 및 수료식)
 - 중국 기업가협회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원우회, 소그룹 등의 지원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제공
 - 원내 산학연 기술협력 및 기술 자문 지원

문의 GIST 기술경영아카데미 Tel. 062)715-2622,3 / https://gtmba.gist.ac.kr
광주과학기술원 http://www.gist.ac.kr



'학폭예방' 기초단체 5000만원 지원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교와 민간단체 등이 협력해 우수한 학교폭력 예방·근절활동을 펼칠 경우 연간 5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내년 1월 22일까지 '지역 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 지자체의 신청

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활동 지원 사업'은 지역 내 교육지원청, 경찰, 민간단체, 병·의원, 단위학교, 대학 등 관련 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교폭력 예방·근절활동을 펼치는 기초 지자체에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학교폭력이 학교만의 노력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기초 지자체가 중심이 돼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지자체-교육지원청, 지자체-교육지원청-경찰서, 지자체-경찰서-학교-민간단체 등 여러 조합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오후부터 눈·비 주말 추위 예상

26일 광주·전남지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눈이나 비가 내린 후 다시 추워지겠다. 2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오후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1cm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27일부터 광주 최저기온이 영하 3도, 목포 영하 2도로 떨어져 춥겠고, 주말인 28일과 휴일인 29일에도 간간히 눈이 내리겠다고 전망했다. 서해와 남해만바다에서는 26일 오후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점차 매우 높게 일겠고, 항해하거나 작업하는 선박은 주의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바다의 물결은 27~28일에 2~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29~30일과 2014년 1월 1~2일에는 1~3m로 약간 높겠으며, 그 밖의 날은 1~2m의 높이로 일겠다고 예측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9분 해질 17시 27분 | 해넘이 00시 42분 달 뜨기 12시 32분

산발적 눈
구름 많은 가운데 눈 오는 곳 있었다.

광주	구름많음	1/6℃
목포	눈	1/6℃
여수	구름많음	3/7℃
나주	구름많음	-2/6℃
완도	구름많음	1/7℃
구례	구름많음	-2/7℃
강진	구름많음	-1/7℃
예남	구름많음	0/7℃
장흥	구름많음	-1/7℃
순천	구름많음	2/8℃
영광	눈	-2/5℃
진도	눈	1/7℃
전주	구름많음	-1/6℃
군산	구름많음	-1/5℃
남원	구름많음	-3/6℃
옥산도	눈	5/6℃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날짜	27(금)	28(토)	29(일)	30(월)	31(화)	1/1(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3/2	-2/2	-2/5	-1/7	0/7	-1/7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